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노동생산성, 3년만에 가장 큰 증가... 인건비 상승폭 둔화
- Bloomberg: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불구, 여전히 최저치
- Bloomberg: 리치몬드 연방총재, “인플레 하락이 연착륙 신호일 수 있어”
- WSJ Real Time Economics: 주택 소유자 공실률, 사상 최저

[미국 금융]

- Bloomberg: 주식 약세속에서 국채 매도로 트레이더 불안
- The Economics: 달러 가치 상승한다
- Bloomberg: 미 부채 상황, 지속가능성 문제 일으켜

[뉴욕시]

- Bloomberg: “뉴욕 코로나 확진 조금씩 늘고 있다”

[뉴저지]

- Costar: 한국 정부, 뉴저지와 시카고에 물류 센터 건립

[반도체]

- WSJ: 미 철강업체들 “수요 둔화에도 사업 늘린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원격 근무,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영향 끼친다
- Bloomberg: Apple과 Amazon 실적, 추가 상승 가능한가?
- WSJ: Qualcomm “스마트폰 시장 부진에 타격... 감원 계획”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Productivity Jumps By Most Since 2020, Blunting Labor Costs

미 노동 생산성, 3년만에 가장 큰 증가... 인건비 상승폭 둔화

- 올해 2분기 미 노동 생산성이 거의 3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인건비 상승세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통계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생산성, 즉 비농업 사업체 직원의 시간당 생산량은 올해 첫 3개월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2분기에 연 3.7%의 증가율을 보였다. 당초 예상치는 2.2% 상승률.
- 반면에 단위 노동 비용, 즉 사업체가 생산물의 각 단위 당 생산에 지불하는 인건비는 1분기에 3.3% 증가한후 이번에는 1.6% 상승세로 줄어들었다.
- 이처럼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 비용 등의 상승세에 따른 인플레 여파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WSJ 기사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Tick Up, Still Near Lowest This Year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 불구, 여전히 최저치

-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근로자를 찾는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7월 넷째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천 건 증가한 22만 7천 건이다. 계속수당을 받는 전체 청구건수는 7월 셋째주 1주일 동안 170만 건.
- 낮은 수준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임금 상승률 둔화, 일자리 감소 등 일부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Barkin Says Inflation-Rate Drop May Be Soft-Landing Signal

리치몬드 연방총재, “인플레 하락이 연착륙 신호일 수 있어”

-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인 Thomas Barkin은 6월 인플레의 예상외의 완화 현상은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즉,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안정으로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는 “인플레가 단기간에 정상을 되찾고 경제가 추가적인 충격을 피할 수 있다는 여전히 가능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온다”며 연준의 목표는 경기 침체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임무인 인플레를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 주택 소유자 공실률, 사상 최저

[주택 소유자 공실률, 사상 최저]

- 주택 소유자 공실률은 비어있는 주택 중에 매물로 나와있는 주택을 말하는 데, 이같은 매물로 나와있는 빈집이 많지 않다.
- 이같은 공실률 비율은 2분기에 0.7%로 하락하여 연방 상무부가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 현재 주택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높은 모기지와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 금융]

Bloomberg: Treasury Rout Unnerves Traders as Stocks Retreat 주식 약세속에서 국채 매도로 트레이더 불안

- 국채 매도가 커지면서 10년물 수익률이 9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차입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은 떨어졌다.
- S&P500 지수는 어제 수요일 하락폭이 커졌고 유럽 증시는 1% 가까이 떨어졌고, 달러는 4일째 강세를 보였다. 여기다 퍼싱 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 겸 CEO인 Bill Ackman이 “장기 금리 상승이 주식에 미치는 영향을 헤지하기 위해 30년물 국채를 공매도한다”고 밝혀 약세 분위기를 키웠다.
-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약세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일 동안 국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 위험자산에 대한 어두운 분위기가 드리우고 있으며 미국이 다음주에 분기 재정 보고서를 발표할 때 까지 투자자들은 채권 시장에 관심을 집중 시킬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The Economist: The dollar is now better value, says the Big Mac index 달러 가치 상승한다

- 이코노미스트지는 1986년 이래 전 세계 맥도날드 빅맥 가격을 바탕으로 공정한 통화 가치에 대한 비교해 왔다. 이코노미스트지의 지수에 따르면 7월 미국시장에서 빅맥의 평균 가격은 5.58달러로 1월 대비 4% 이상,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했다. 이는 2012년 7월 이후 미국 ‘맥플레이션 지수’에서 기록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 반면에 유로존과 영국에서 1월부터 7월까지 빅맥 가격은 두 배 이상, 캐나다에서는 거의 네 배나 빠르게 올랐다. 한마디로 이들 국가들의 통화 구매력이 달러보다 빠르게 떨어지는 것이다.

The Economics 기사

Bloomberg: US Debt Path Raises Sustainability Question 미 부채 상황, 지속가능성 문제 일으켜

- 미국 부채 비율은 올해 GDP 대비 122%로 예측되며 오는 2028년에는 136%까지 올라간다. 신용평가사 Fitch는 이번주에 미국 신용등급을 AA+로 낮추어 미국의 부채 경로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 미 재무장관이었던 Timothy Geithner는 어제 수요일에 “미국이 부채 경로를 바꾸기 위해 위기에 직면하길 원치 않는다”며 “너무 늦기전에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Fitch의 경고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낙관적인 연착륙이 간과할 수 있는 재정 데이터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

Bloomberg: New York Covid Cases Are Rising Slightly, Officials Warn “뉴욕 코로나 확진 조금씩 늘고 있다”

- 뉴욕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코로나로 인한 입원자 수가 증가했다. 뉴욕주 보건국장은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받도록 뉴욕 주민들을 촉구했다.
- 7월 24일 기준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63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뉴욕주 보건국장 James McDonald 박사는 뉴욕주 전역 병원 입원이 전주 대비 약 22%, 보고된 확진자는 55% 급증했다고 말했다.
-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자들은 대규모 확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미크론 아형 변종의 합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NYT 기사

[뉴저지]

South Korean Government To Back Two Logistics Centers Near Chicago, One in New Jersey

한국 정부, 뉴저지와 시카고에 물류 센터 건립

- 한국정부와 CJ 대한통운 민관합동으로 4억5천7백만불 규모의 물류 센터를 시카고 인근과 뉴저지에 설립하게 된다. 이 물류 센터는 한국의 수입 수출 용도로 사용된다.
- 뉴저지주 등 두 곳에 대형 창고와 주차장, 진입도로, 물품 입출하 시설, 부대시설 등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신규 물류센터는 온라인 유통업체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의 수출입 화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CJ대한통운은 밝혔다.
-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성명을 통해 "북미 고객사들, 한국 기업들, 이커머스 셀러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 물류 인프라와 운영 능력을 활용해 고객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및 복합운송 솔루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류'를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뉴저지의 경우는 시카커스로 알려졌다.
- 이번 민관 투자 약정은 올해 3분기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1분기에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star 기사

[반도체]**WSJ: U.S. Steelmakers Are Still Expanding as Demand Slows
미 철강업체들 “수요 둔화에도 사업 늘린다”**

- 철강업체들은 신규 공장에 투자하고 있다.
- 이는 연방 인프라 프로젝트, 자동차 생산 증가, 새 전기 배터리 시설에 필요한 철강이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Nucor, Steel Dynamics, US Steel X는 향후 몇 년 내에 신규 또는 확장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장에 연간 1천 2백만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추가하는 것이 목표.
- 철강 경영진은 추가 철강 소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로 및 교량 수리, 태양열 및 풍력 에너지 시설, 자동차 생산 증가 등에 수십억 불 인프라 지출 때문이다.
- 또한 반도체와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신규 공장은 건설 업계의 금속 수요를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Workers to Employers: We're Just Not That Into You
원격 근무,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영향 끼친다**

- 직원들은 여전히 원격 근무를 선호한다. 하지만 완전 원격 근무는 생산성 향상은 커녕 오히려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포기했다. 미국 인사관리학회(SHRM)에 따르면 고용주의 62%가 원격 근무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 또한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근로자의 39%가 재택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일주일에 5일 이상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
- 이는 팬데믹 이후 업무에 대한 접근이 광범위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급 휴가나 유연한 근무 시간 등 비금전적 보상도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은 팬데믹 이전보다 더 적은 업무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직원의 행복감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근로자 만족도는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급격히 상승했다. 198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 설문 조사의 18개 구성 요소 중 ‘일에 대한 관심’은 만족도 상승에 가장 적게 기여한 반면, ‘일과 삶의 균형’은 가장 크게 늘었다.

WSJ 기사

Bloomberg: Apple and Amazon Results Pose Tech Rally's Toughest Hurdle Yet**Apple과 Amazon 실적, 추가 상승 가능한가?**

- 애플과 아마존 실적은 기술 중심 랠리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일 수 있다.
- 두 종목 모두 올해 S&P 500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상대적으로 견고한 수익 흐름과 시장 지배력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 하지만 높은 배수로 거래되고 핵심 사업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 게다가 올해 상승 핵심 동력이었던 인공지능에 대한 직접적 노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다.
- “이러한 가치 평가에서 배수가 낮아지거나 수익이 매우 견조하게 반등해야 하는데, AI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램은 어려울 수 있다”고 BCA 리서치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인 Irene Tunkel이 말했다.

Bloomberg 기사

WSJ: Qualcomm, Stung by Sluggish Smartphone Market, Plans Layoffs**Qualcomm “스마트폰 시장 부진에 타격... 감원 계획”**

- 아이폰과 핸드셋에 들어가는 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핵심 휴대폰 칩 사업 쇠퇴로 새로운 분야에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 스마트폰 판매량은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했지만 2분기에 전년 대비 7.8% 감소하는 등 최근 몇 분기 동안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 퀄컴의 최근 분기 핸드셋용 칩 매출은 52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퀄컴 최고 경영자인 Cristiano Amon은 비용 절감을 계획하고 있다.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주로 해고할 것으로 보이며,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WSJ 기사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더 크게 올리는 미 재정 '시한폭탄'...더는 무시하기 어려워"**

**WSJ "투자 위축·주가 하락 가능...군사적 위기 등 대응에 난관"
WP "미 행정부 등급 하향에 충격...더 강한 부채와의 싸움에 직면"**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국의 재정 부담 문제가 더 부각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피치의 등급 강등이 단지 시장에 동요를 불러일으켰지만, 재정 시한폭탄이 더 크게 똑딱거리고 있어 조만간 이를 무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2011년의 일시적인 주식 폭락기를 제외하고, 재정 과잉이 미국인들에게 즉각적인 문제가 된 일은 거의 없었지만 이번 피치의 경고는 이를 무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점에 나왔다는 것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